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12. 3.(토) 11:00	배포 일시	2022. 12. 2.(금)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 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 명지혜 (044-203-5225)

2차관,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천안저유소 현장점검

- 품절 주유소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-
-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의 운행 지원을 위해 경찰력 협조 강화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**은 12.3.(토)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**휘발유,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**하였다.

* 대한송유관공사 : 송유관을 통한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 '90년 1월 설립

○ **천안저유소**는 **'89년 7월 준공**되어, 저장탱크 9기, 총 210천 배럴의 저유설비를 통해 **수도권·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**하고 있는 시설로,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개시(11.24(목)) 이후, **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**이다.

○ 이날 **박일준 제2차관**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0일차에 접어듦에 따라, 천안 저유소 등 **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·출하 현황을 점검**하는 한편, 현장 임·직원들을 격려하고,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【 천안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】

○ 일시 / 장소 : '22.12 3(토) 11:00~11:25 / 천안저유소

○ 참석자 : 박일준 제2차관, 석유산업과장, 천안서북경찰서 정보과장
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사장, 경영관리본부장, 안전운영본부장 등

○ 주요내용 : 천안저유소 파업 현황 및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,
현장 임·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

□ **대한송유관공사**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, 전국 저유소 출하량은 **11.30(수) 이후부터 회복추세**이나, 화물연대 파업 직후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**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**하고 있으며,

○ **산업부·경찰청 및 정유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**함으로써, 비상시 **국내 석유수급 차질을 방지**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.

□ **산업부**도 11.24(목)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부터 「**정유업계 비상상황반***」을 구성·운영 중으로,

* (구성) 산업부, 정유4사, 대한석유협회, 한국주유소협회, 한국석유유통협회, 대한송유관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석유관리원 등

○ 정유공장·저유소 등 **주요거점별 입·출하 현황** 및 **주유소 재고 현황 등**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군 탱크로리 등 **대체 수송수단을 긴급 투입하는** 등 **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**로 인한 **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**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□ **박일준 제2차관**은 "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일부 주유소의 **휘발유·경유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**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**매우 엄중하게 인식**하고 있으며"

* 12.2(금) 14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(휘발유 41개, 경유 13개, 휘·경 6개)이며, 서울 22개, 경기 16개, 인천 1개, 충남 11개, 강원 4개, 충북 3개, 세종 1개, 전북 2개

○ "집단 운송거부에도 불구, **운송에 나서주시고 있는 탱크로리 기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** 산업부 차원에서도 **적극적인 경찰의 지원과 협조를 거듭 요청**할 것"이라 밝혔다.